

서갑원(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1차 구술

1. 구술자: 서갑원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박성수
4. 구술일자: 2012년 2월 21일
5. 구술장소: 서울 종로구 소재 카페
6. 구술분량: 10분 1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1993년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 선출과정

구술자 : 어,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로 합니다. 이광재씨나 저는, 그때 이광재 지사하고 저하고 두 사람 비서로 있었으니까 최고위원 나가는 거는, 최고위원을 당원 직선에 의해서 칠천(7,000)명 대의원 직선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당연스럽게 우리는, 뭐 당연히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준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대통령대로, 이광재씨는 이광재씨대로, 저는 저대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만큼의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그게 상당히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들을 주위사람들이 해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위원을 나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내 한사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정치를, 지도급의 정치를 해보겠다, 정치를 뭔가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게 아니고. 당연히 최고위원을 나가는데 내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칠십(70)년대에 이른바 김대중, 김영삼 사십(40)대 기수론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로부터 이십(20)년 만에 자연스럽게 이제 양김, 어쩌면 삼(3)김일 수도 있죠. 그 삼(3)김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김대중 후보는, 김대중 총재는 정계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삼(3)김 정치가 끝난 이후에 포스트(post) 삼(3)김에, 그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는 진지한 성찰을 했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또 진지하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광재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의원 명단을 놓고 대의원 분석

을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떨어져본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우리는 삼(3)등, 삼(3)등 아니면 사(4)등 난다고, 우리는. 이광재씨하고 저하고 표 분석한 거는 삼(3)등 아니었으면 사(4)등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결과는 오(5)등. 사(4)등인 권노갑 최고위원한테 두 표 뒤편 오(5)등¹⁾을 나긴 했지만은 그건 별로 의미가 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우리는 당선이 될 수 있는 대의원 정도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데이터를 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결과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 그 결과가 크게 빛나(가)지도, 벗어나지도 않았죠.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선거, 구십이(92)년 대통령선거에 우리 당원들이 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누가, 어떤 사람한테는. ‘노무현한테는 고맙다.’ 그런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직접 뛰었던 당원들일수록 또 각 지구 당에 무슨 당직을 맡거나 대의원급 이상에 있는 당원들일수록 그 모습을 더 많이 봤으니까. 더 정확히 분명하게 봤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노무현은 참 고마운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기 국회의원 배지까지, 삼(3)당 합당 따라가면은 뭐 김영삼의 가장 핵심측근이 되는, 김영삼한테 가장, 실제로 김영삼 총재한테 가장 총애를 받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까? 청문회 이후에. 그런 노무현이, 그런 그 과감히 떨어치고 삼(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까지 잃어가면서 목이 터져라 죽을힘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던 그 모습을 열심히 했던 당원들은 다 알거든요. 함께 했던 당원들은. 거기서 그럼 일(1)인당 세 표를 찍는데 그 한 표 안줄 거라고 생각 안했어요.

(대선 기간에) 계속해서 전국에 있는 각 당원들, 여성당원들, 청년당원들 또 노인들 또 당, 예를 들면 조직부장, 홍보부장, 지구당에 사무국장 또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당원들이 와서 그 당원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노 대통령님은 한 번도 그 강연에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당 연수에. 당원 연수교육에. 그리고 늘 이제 당원들 상대로, 교육받은 당원들 상대로 지금도 어디 기업체도 그렇고 연수원에서 다 강사들 평가하잖아요? 당에서도 다 평가했는데 늘 일(1)등이었습니다. 그 강사 평가에서. 그 온 당원들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고 기쁨과 이 즐거

1) 당시 득표수는 김원기(2580표), 유준상(2048표), 권노갑(1949표), 노무현(1947표), 한광옥(1903표), 신순범(1836표), 이부영(1823표) 순이었다. 한겨레신문, 1993.3.12 참고

움, 웃고 눈물도 흘리고 분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논리로 무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랑받는 강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이제 선거인단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럴까요? 그분들이 선거인단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상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한 표(도 아니고) 세 표, 한 표만 있으면 또 모르는데 세 표 있는데 주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지 못했고. 우리도 또 나름대로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적극적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원들이. 대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다 표 계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 두 표 차이로 오(5)등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오랜, 당 활동을 오래했던 당원들은 또 중앙당의 당직자들도 그렇고 또 의원님들도 의원들도 그렇고 노 대통령의 공식 호칭이 오래도록 ‘노 최고’ 로 불렸던 그 출발이 구심삼(93)년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내가 대통령선거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뭐 조직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없죠. 결국 자원봉사자들이 지금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예를 들면은 각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또는 노동단체나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당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대의원들을 만나주고 대의원들 선거운동을 해주고 우리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또 이렇게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후원회에 가입해 계신 분들이, 후원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요즘 따지면 노사모지 뭐.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다니면서 선거운동 해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평상시에 헌신적으로, 또 자기모습을 명실상부하게 민주주의와 또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 혁신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전 의원이죠. 그 모습들이 그대로 활동, 일상 활동에서 그대로 표현됐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또 특히나 당원들에게는 그대로 전달되고 그래서 그 결과 당선됐죠.

그런 전당대회였습니다. 그 전당대회가. 어쨌든 뭐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현의, 노무현 변호사에서 노무현 의원에서 노무현 전 의원, 노무현 위원장에서 노무현 최고위원으로 호칭이 바뀌고. 호칭이 바뀐 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그 야당 정치지도자로서의 정치력을 하게 되는, 새로운 또 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거죠. 이게 짧

은 시간이지만 그게 구심삼(93)년 전당대회였습니다.

■ **구술자 주요 이력**

1962. 전남 순천 출생

1989.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4.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2. 원외 정치인 노무현 비서로 정계입문

1993.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연구원

2002.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보좌 및 의전팀장

2003.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

2004.05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순천)

2008.05 제18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 전남 순천)

2008. - 2011.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 - 201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0. - 201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치인 노무현의 비서로 인연을 맺었다.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거쳐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과 이후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재임기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재선의원이 됐다.